

월간 까달 특공대

4월호



깐달 특공대 목차



1. 4월 아피 스케줄

2. YDP 활동

3. CDP 활동

4. 우리들의 고민

5. 아피들의 쫄츠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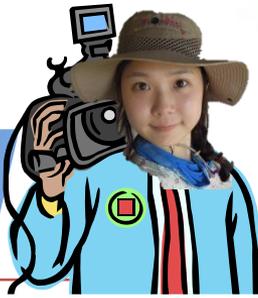
6. 아피들의 일상

7. 아피들 4월 ESSAY

8. 아피들 사진전

간달 특공대

작렬하는 태양 속의 간달!
아띠들의 4월 스케줄



SUN **MON** **TUE** **WEN** **THU** **FRI** **SAT**

Korean
week

		1 YD Handicraft Sports activity 영어수업	2 YD Music activity 한국어수업	3 YD Restaurant meeting 영어수업	4 YD Cooking class	5 프놈펜 나들이
6	7 CD 스 와이 뽀레이 마 을 방문 한국어수업	8 CD 스 와이 뽀레이 마을 방문 영어수업	9 CD 쯔라이 로응, 따흐 뜨마 마을 방문 한국어수업	10 Youth 쫘츠남 small 파 티	11 센터사람들과 점 심	12 ← 센터휴일
13	14 쫘츠남	15 쫘츠남	16 쫘츠남	17	18	19
20	21 한국어수업	22 영어수업	23 CD 따흐뜨마 밭갈기 한국어수업	24 CD 따흐뜨마 pig raising 교육 영어수업	25 CD 따흐뜨마 Chicken raising 교육 한국어수업	26
27	28 한국어수업	29 National Caritas 방문 영어수업	30 350ppm&Youth Club meeting 한국어수업			

아띠 시엠립 여행

간달 특공대

아빠들의 YDP



모사장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Restaurant Meeting



Caritas에서는 식당이 부족한 이곳 마을 근처에 레스토랑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의 Youth들도 Restaurant Management반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현재 레스토랑은 계획단계라 소비자의 Needs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이에 아띠들은... 그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요거트 가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우리 모사장님이 Caritas의 레스토랑 창업에 관련해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11기 아띠들... 이후에 이곳에 올 아띠들도 차곡차곡 노력을 쌓아주겠죠?



깐달 특공대

수박화채로 여름을 녹이다!
쿠킹클래스



지난 4월 4일, 라온아띠 단원들은 4월 Korean Week를 맞이해 Caritas 센터 내에서 Cooking Class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치국수, 잡채 등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고민하던 아띠들은 여름철 별미, 수박화채를 만들기로 결정! 현지 과일들을 넣고 싶다는 의견에 잘 익은 망고와 러벗을 넣기로 했습니다. Takhmau 시장과 Lucky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에서 열심히 밑 작업을 한 뒤! 센터에서 유스 친구들, 마을 동네 아이들, 스텝분들과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깐달 특공대

유스들과 함께 한다!
350PPM I



저희는 350PPM 캠페인을 저희끼리 얘기하기 보다, 이것에 대해 센터의 유스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50PPM을 함께 할 Youth 친구들을 모집하기에 앞서, Youth 월간 미팅 자리를 빌어 Youth 학생들 앞에서 350PPM 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캠팀 아띠들이 만든 350ppm ppt 내용을 간략히 보실까요~?



유스들과 함께 한다! 350PPM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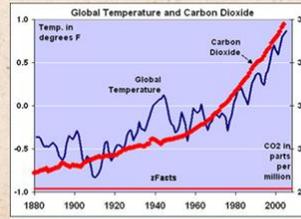
Being a Good Friend Project

350ppm campaign With Caritas Student and Raonatti 11th



Why it should not over 350ppm

Over its self-purification ability. Earth is s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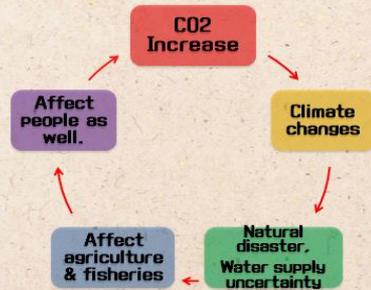
02. Climate Change

Project명은 Being a Good Friend입니다! 우리는 라온아띠 아시아의 좋은 친구이자 지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 수치 350ppm을 넘게 해서는 안 되는지. 지구의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것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것임을 알리고 350ppm을 넘게 만드는 원인들을 설명했습니다.

03. The reason why Cambodian should be concerned in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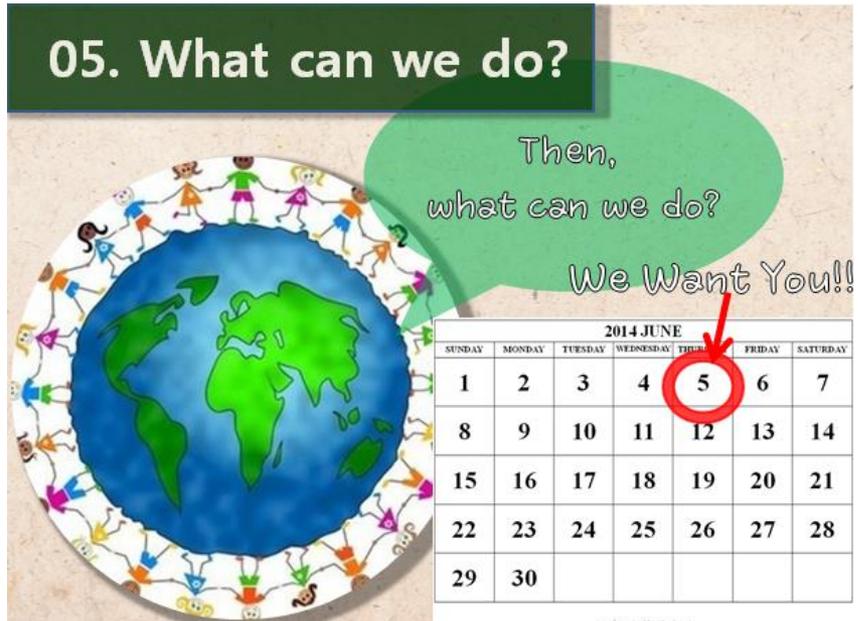
Connection summary



그리고 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 관계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산화 탄소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설명했습니다.

유스들과 함께 한다!
350PPM III

마지막으로 지구 전역에서 진행 중인 350ppm의 예시를 보여주며,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캠페인 날짜는 6월 5일이지만 그 전에 약 한 달 간 유스들과 아띠들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띠들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발표가 끝난 후에도 여러 질문을 해주는 등 큰 관심을 보여줘서 아띠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아 참, 학생들에게 번역을 해주신 Mr.Thann 감사해요!

그 많던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

한국어 영어 수업



아이들은 Caritas 측의 요청에 따라 3월 마지막 주부터 한국어/영어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아이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4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명절, 쫄츠남 크마에(캄보디아 설날)가 있어 쫄츠남 크마에가 있는 4월 셋째 주 전후로 특히 학생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반이 처음 학생 수와 비교해 반 이하로 줄었고, 심지어 한국어 Children 수업은 아이들이 다른 학교의 영어 수업에 가는 바람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 YDP Staff 들과 함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기다리고기다리던! National Caritas 방문



4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아띠들은 수도 Phnompenh 에 있는 National Caritas 를 방문했습니다. National Caritas 방문은 본래 3월 일정이었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게 되고... 결국 아띠들 사이에선 '이러다 한국 돌아가기 직전에 '잘 지내다 갑니다~' 라고 작별의 인사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냐' 는 말이 돌았었다는...



National Caritas 를 방문한 아띠들은 Mr. Kim Rattana 씨를 포함한 다른 스태프 분들께 Caritas의 활동들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띠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외에도 Caritas의 다양한 사업에 함께 해 볼 것을 제안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ffice 를 둘러보며 직원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는 후 돌아왔습니다.



아 참, Caritas 티셔츠와 Caritas 로고가 새겨진 아주 예쁜 목도리도 선물 받아왔습니다!

깐달 특공대

아띠들의 CDP



함께 이해해 보아요! Caritas VDA LOAN

땅이 있는 UNIT 멤버

1. 농약을 뿌리지 않는 경작법, 즉, 유기농법 교육.
2. 무엇을 재배해야 좋은 지(ex. 뜨러꾼) 시장의 수요가 있는 작물 재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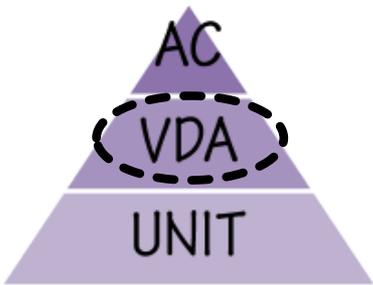
우물, 펌프
설치

마을공동
쌀 창고
만들기

재난 예방 및
사후대처 교육

땅이 없는 UNIT 멤버

1. 돼지, 닭, 소 기르는 법 교육.
ex) 각 마을에 공동 소 두 마리를 지원한다. 돌려가며, 개체수를 늘리고 소 키우는 법을 교육한다.
2. Small business 지원
(ex. 오토바이 세차, 마을 안 작은 식료품 가게 등)



VDA LOAN(VDA)

이 자금의 30%는 Caritas에서 지원+70%는 마을 사람들의 자체적인 예금으로 운용됩니다.

본격 필드 방문! 마을 농가 탐방



뜨러꾼 재배 시설 현장입니다.
그물처럼 하늘을 향해 막아진 것은 shed라고 불립
니다. 참고로 이 shed는 10기가 설치한 것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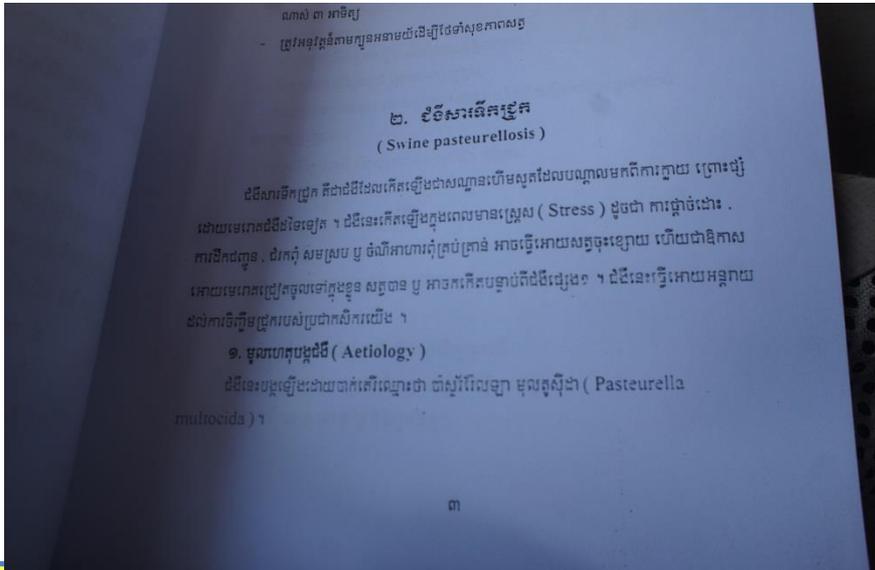
농가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농
사일을 돕기도 했는데요, 잡초 제거하는 법을 마을
어르신께 배우고 난 뒤,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잡초 제거가 끝나고 난 뒤 제거된 잡초를 한
쪽으로 치우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런 공부는 처음이야! How to raise pig & chicke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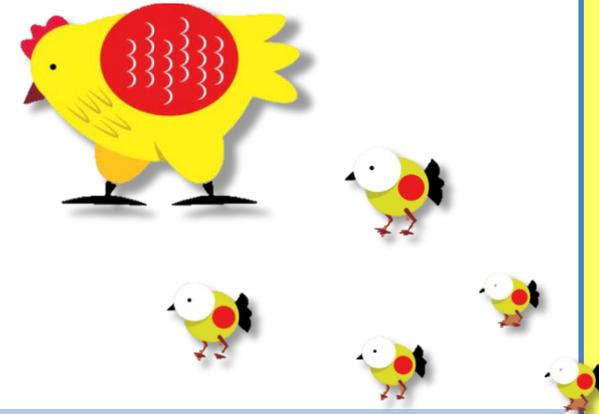


몇 십년 동안 돼지를 키우신.. 돼지 기르기 계의 대부분! 에게 돼지 키우는 법을 강의 들었는데요. 크메르어로 되어있고 살모넬라균... 파스퇴르... 페니실린... 등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는 강의에 아띠들은 난감했지만 열심히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날은 돼지 목에 주사를 놓는 실습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깡달 특공대

이런 공부는 처음이야!
How to raise pig &
chicke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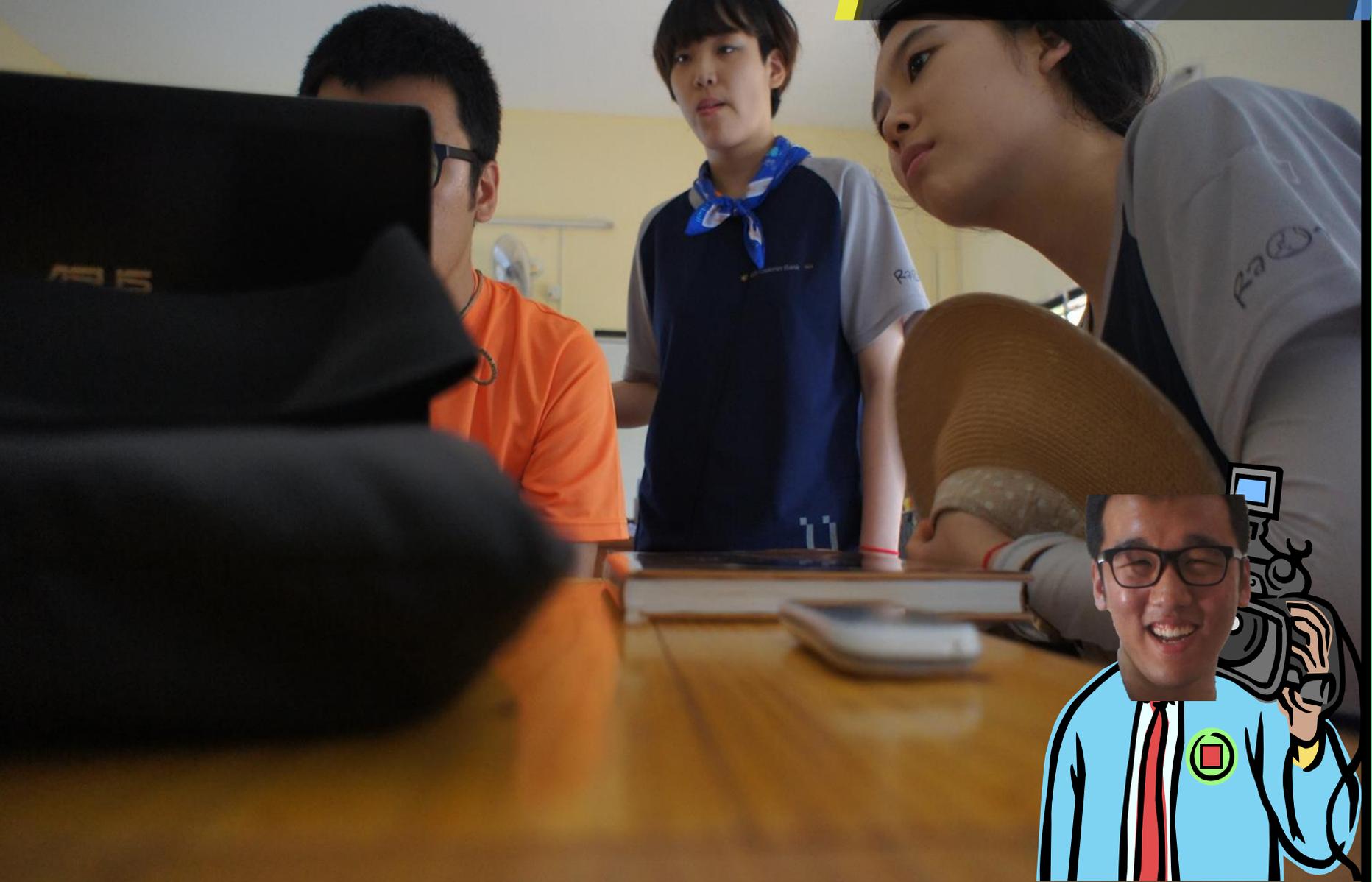


돼지에 이어 마을에서 유용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닭에 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닭 기르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분은 다름아닌 Caritas의 Mr.Rithy였는데요. 집에서 무려 150마리의 닭을 기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띠들은 5월 활동에 지을 닭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유익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빠들의 고민



센터에서 생긴 일... 우리들의 고민

1. YDP수업 학생수의 감소

영어수업의 학생 수가 처음의 1/4 이하로 떨어졌고 한국어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수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한국어 children반 아이들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따라 피드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서면으로 피드백 용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하지만, 어쩌면 수업이 따라오기 어렵거나 재미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지 고민이 된다.

2. YDP 스텝들과의 소통 문제

이따금씩 YDP스텝들과 Youth 학생들 간에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한국어 수업에 학생이 아무도 오지 않아 단원들이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텝들과 미팅을 했고, 그 결과 앞으로는 사전에 미팅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3. CDP 스텝들과의 소통 문제(시간, 교통수단)

CDP활동을 나갈 때 Caritas 차량 or 툽툽을 타고 가는데 당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교통수단이 변경되기도 했었고, CDP활동을 마치고 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차량이 온 적이 더러 있었다. 그래서 팀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있었다. 매 달마다 작성하는 CDP보고서에 피드백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이에 대해 CDP staff들과 미팅을 하였고, CDP스텝들과의 회의를 통해 앞으로 스태프가 출발-복귀 시간이나 교통수단에 대해 전날 확실히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런 고민으로 고민고민 우리들끼리의 의견 조율 과정 I

4-1. 침묵에 관해

공식적인 자리나 CDP 활동을 나갔을 때, 스텝들과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통을 책임지는 단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영어에 부담을 느끼는 몇몇 단원들은 한국어로 말을 하면 그 단원이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침묵을 하였던 것이었는데, 그 단원은 '통역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침묵하고 있을 때 나 혼자서 말을 생각하고 또 혼자 말 하는 게 힘들다' 고 하여 앞으로는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그 단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4-2. 350ppm-환경운동

우리 조는 저마다 환경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메시지 이면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단원이 있는 반면, 환경 캠페인 자체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단원도 있다. 350ppm은 라온아띠 11기가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렇지만 우리 조는 350ppm을 진행하는 과정이 팀 간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따라서 모두가 참여하되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 우리 조는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려 노력 중이다.

4-3. 아픈 유스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것

센터 학생 중 한 명이 일주일 넘게 눈병에 걸려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고, 약도 없다고 하였다. 약을 살 수 있게 그 학생에게 돈을 건네주자는 단원과 무턱대고 돈을 건네주는 건 그 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는 단원이 있었다. 며칠 뒤, 그 학생의 눈병이 나아서 작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이런 고민으로 고민고민 우리들끼리의 의견 조율 과정 II

4-4. CDP 퇴근 시간에 대해 유동적으로

CDP활동을 마을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센터에 3시 30분에 도착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로 마을에서 CDP활동을 하다 보니 정확히 3시에 일을 끝마칠 수 없던 적이 있었다. 복귀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을 확실히 끝마치고 가고 싶어 하는 단원이 있어 달는 나눔 시간에 CDP활동 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팀원들 모두가 돌아오는 교통수단과 시간만 미리 확실하게 알려준다면 유동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여서 그렇게하기로 했다.

4-5. 세월호 추모활동

세월호 사건에 따라 스텝, 유스 학생들과 함께 실종자 무사기원을 염원하는 촛불집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총괄 책임자이신 Mr.Meng씨께서 제안하였다. 세월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스텝, 유스들과 염원을 하면 좋겠다는 단원과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세월호를 주제로 보여주기 식 염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단원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고 센터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했다.

4-6. 파인애플

쿠킹클래스 때 화채에 들어갈 파인애플을 사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 때 일회용품이 생기는 게 양심에 걸려 시장에서 파인애플을 통으로 사서 손질하자는 단원과 파인애플은 손질이 힘드니까 마트에서 손질되어 있는 파인애플을 사자는 단원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 결국 파인애플을 통으로 사서 손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또 쿠킹클래스도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단원들의 생각에 관해서는 아직도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

깐달 특공대

아띠들의 쫄츠남



깐달 특공대

쫄츠남 small party의 시작!
스님들의 예불



캄보디아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쫄츠남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불교 국가답게 스님들의 예불로 시작합니다.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아띠들은 태어나서 처음 앉아보는 불편한 자세로 다리가 저려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불이 끝나갈 무렵, 스님들은 예불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꽃과 물, 사탕을 뿌립니다. 오제준씨는 사탕을 7개나 모았다고 하네요..?

깐달 특공대

폴츠남 small party 본격 즐기기!
전통놀이 그리고 댄스타임!



위에크 꺼엄



엥곤

우리나라에서도 설날에 윷놀이, 연 날리기 등을 하듯, 캄보디아에서도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센터에서도 small party-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를 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석치기와 비슷한, 돌맹이를 썰러뜨리는 엥곤, 야자수 가지를 가운데 놓고 남녀가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는 게임, 런 다음 스트럭 처으, 무 같은 현지 과일을 손 대지 않고 먹는 게임인, 남 플라에 처으 눈을 가리고 단지를 깨뜨리는 게임, 위에크 꺼엄

남 플라에 처으



런 다음
스트럭 처으



깐달 특공대

쫄츠남 small party 본격 즐기기! 전통놀이 그리고 댄스타임 !!



게임이 끝나고 학생들이 준비한 '만담'을 재미있게 본 뒤 저녁을 먹었습니다. 캄보디아 카레에 바게트를 찍어먹었습니다. 이 곳 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태호단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남남



이윽고 밤이 왔습니다. 캄보디아하면 춤을 빼놓을 수 없죠. 매주 토요일 아침, 센터 여학생들은 압사라(캄보디아 전통 춤)를 배웁니다. 이 날을 위해 압사라를 열심히 연마했던 건 아닐까요? 밤은 깊어갈수록 지치지 않는 댄스 타임이 계속됐습니다.



깐달 특공대

쫄츠남, 아띠 휴가의 절정
씨엠립 여행



10일 가량의, 꽤 길었던 쫄츠남 연휴동안 아띠들은 씨엠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앙코르와트, 타프롬 사원, 바푸온 사원, 바이온 사원, 코끼리 테라스 등. 날씨는 더웠지만, “다시 이 곳에 올 기회가 있을까..?” 란 생각에 꽤나 열심히 돌아다녔답니다.

관광을 오신 한국인 분들을 따라다니며, 공짜로 가이드분들의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
아띠들은 앙코르와트에 새겨진 많은 부조들,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 앙코르 와트 안에서 1달러를 외치며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들을 보며 저마다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깐달 특공대

아미들의 일상



깐달 특공대

저녁은 다같이... 후계자 없는 태비게이션!
태호



모두의 고민을 이야기하던 어느 날 밤, 태호 단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저녁만큼은 함께 먹었으면 좋겠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때는 저녁시간이 유일하잖아..” 그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올라오는지 태호 단원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팀 내에서의 태호 단원의 역할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길 찾기, 요리하기, 고양이 돌보기... 그의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팀원들은 노력하였지만 결과는 맛을 알 수 없는 감자조림과 한강이 된 라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길 찾기입니다. 단원들 사이에서는 태비게이션 (태호+네비게이션)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꾸준히 단원들은 태호 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네의 지리를 익히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언제나 우리가 돌봐 줄게요. 귀염둥이 태호 단원 쑤쑤!!

간달 특공대

물맨, 설거지만,,, 아이들의 슈퍼맨!
제준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을 먹은 후 제준 단원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약 20분 가량의 설거지가 끝난 후 그는 정수기로 다가가 물통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통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해맑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준 단원은 다시 빨래 통으로 다가가 빨래를 시작합니다. 상의가 20벌이나 있는 제준 단원답게 빨래는 건조대 하나를 모두 채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누운 제준 단원의 귀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준 단원이 가장 좋아하는 비싸이입니다. 풍선 두 개를 들고 웃고 있던 비싸이는 제준 단원이 덩싹 안자 이윽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직 비싸이에 대한 제준 단원의 사랑은 일반 통행인 것 같습니다.

설거지, 물, 아이들에 대한 관심까지... 아기 천사라는 애칭을 가진 제준 단원의 매력은 끝이 어디일까요?

깐달 특공대

앞이 보이지 않아...
내 생애 가장 긴 정전



우기가 다가오는 캄보디아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보다 정전이 더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던 중 4월 24 일에는 5시간 동안 정전이 됐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전이 됐네요^^;;

그 때문에 캄팀은 더운 부엌을 피해 거실 바닥에 앉아 점심을 먹었고, 영어 수업은 후레쉬로 불을 비쳤으며, 또 저녁에는 부랴부랴 촛불을 구해 불을 밝혔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아 무척이나 더운 밤이었지만, 촛불 아래에서 하는 회의는 캄팀의 감수성을 더욱 촉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깐달 특공대

우리들의 새 식구!
라운이와 아띠



바로 옆 방(?)에 사시는 이어이(할머니)께서 길들인 길고양이 두 마리가 캄팀의 집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낮을 많이 가리지 않는 이 고양이들은 캄팀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큰 나방들과 각종 벌레들을 잡아먹어주어서 '좋은 친구'라는 의미로 라운이(노랑이)와 아띠(회색)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라운이는 붙임성이 좋아서 팀원들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라운이와 아띠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운아...아띠야... 보고 싶어 돌아와!!!

간달 특공대

항상 배고픈 웰컴:D
식탁 공개!

4월은 캠팀에게 있어 장이 온전한 날이 없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위염과 장염에 모든 단원이 돌아가며 아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팀은 언제나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사진으로나마 캠팀의 식탁을 공개합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는 간달에서 사는 덕에 캠팀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집에서 밥을 해먹습니다. 시장에 잘 나가지 못하는 (또..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본 이후로..) 이유로 캠팀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땐 meatless를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쉐프와 김쉐프의 요리 솜씨를 감상하시죠~!!



깐달 특공대

아띠들의 4월 ESSAY



이태호 단원 ESSAY

이것저것 하다 보니 4월이 다 지나갔다. 특히나 이번 달엔 짝츠남이라는 긴 연휴가 있어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긴 휴일을 이용해 시엠립을 다녀왔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앙코르와트, 앙코르톰을 돌아다니며 '아 조금 더 시원할 때 오면 참 좋겠다'란 생각을 계속 했는데... 기회가 있을진 잘 모르겠다.

지난 4월은 자문자답의 나날이었다. 고민은 계속해서 생겼지만 마땅한 해답은 찾지 못했던 것 같다. 걱정이 되진 않는다. 어차피 고민은 고민일 뿐이고 오늘 답을 찾는다 해도 내일이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날 테고~~내가 돌아가기 전 날 까지 계속 될 테니까~~

남은 3개월, 이제 90여일 남짓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간 후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도 궁금하다. 물론 뭐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변하고 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등은 아무렴 괜찮다. 남은 나날들, 몸 건강히-마음 건강히 잘 보낼 수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다. 난 잘 할 테니까.



강남스타일과 김치??

#강남스타일

라온아띠에 오기 전 나는 친구들과 이런 장난을 주고 받은 했다. “한국인이니까 가서 말쑹취 강희야”
 “그래! 자랑스러운 한국인 사이의 말쑹 겁나 추고 볼게”. 강남스타일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비꼬는 게
 깔려 있는 농담들이었다. 사이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연결시키는 그 고리, 애국심을 느끼지 않으면 이상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고리가 별로 달갑진 않았었다.

여기 사람들은 강남스타일을 대부분 알고 있다. 툭툭이 아저씨는 자꾸 티아라의 sexy love를 틀어주신다.
 처음에는 ‘아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사이를 얘기해, 난 관심도 없는데.’ 란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리고서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항
 상 실패했다. 초반에는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영어로 얘기해도

항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준 단원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을 소녀들에게 윙크로, 센터 사람들라는 친구로, 스태프들라는 적당한 술로 참 쉬게도 친해지는구나.' 말로 소통을 시도하려는 나와 달리, 제준 단원은 참 잘 어우러지는구나. 그럼에도 나는 말을 통하지 않고는 친해지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되는 사설이었다.

그런 점에서 강남스타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현지사람들도 강남스타일 자체에 관심이 많다가 보다는, 접점이 전혀 없던 한국인과 캄보디아인 사이의 그 어색함을 '함께 알고 있는 어떤 것=강남스타일'로 풀어보려던 게 아니었을까? 관계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비판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태도를 접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함께 알고,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고마워할 필요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치

이번 달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하다. 슈퍼마켓에서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아주머니께서는 우리가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박을 두 통 사주셨다.

아주머니께서는 우리에게 김치를 주시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지만, 마침 핸드폰을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연락하지 못했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우리는 아주머니를 슈퍼마켓에서 다시 뵈었다. 아주머니와 정겹게 인사를 나눈 뒤 가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김치를 주시겠다며 명함을 한 장 주셨다. 현재 우리 집에는 막 담근 생김치와 얼무김치가 엄청 많이 있다. 정말 맛있다. 얼무비빔밥을 즐겨먹고 있는데, 곧 얼무국수를 시도해볼 예정이다.

4월 달에 우리는 시엠립에서 양코르 와트, 양코르 톰에 방문했고, 쯔츠남 명절 동안 센터에서 열린 파티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통 놀이, 전통 의상, 전통 춤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전통의상을 입지도, 전통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디에 있는 건지? 왜 보이지 않는지?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센터 직원들이 '전통의상 가져왔니?' 라고 묻거나 '설날 때 너희 나라에서는 뭐해?'라고 할 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말이다.

깐달 특공대

그러던 차에 아주머니를 만나서일까. 혹시 한국인의 공통된 정서는 '정'-끼약 오글오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오지랖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외국에서 만난 한국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정. 김치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다. 그래서 카리타스 직원 분들에게 '김치 아주머니' 일화를 얘기하며 나누주었는데, 참 자랑스러웠다.



차효림 단원 ESSAY

-독아들기

영화 '모튼사이클 다이어리'를 보았다. 영화 속에서 에르네스트 체 게바라는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여행 중 만난 그 사람들을, 그 때의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에르네스트가 되어가지만, 그 새로운 에르네스트에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가, 변해가는 그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영화를 보고 나는 과연 그리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곳으로 말하자면 먹는 것부터 입고 자는 것까지 한국의 것에 비해 조금은 다르고 불편할 지 몰라도 모두 내게 만족감을 준다. 심야영화를 동네 친구랑 보러 가는 것만큼이나 내가 보고 싶어 모아뒀던 영화를 팀원들과 보는 것이 즐겁다. 또한 동네의 아기를 보는 것은 내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순간이 된다. 크메르어도 못하는 내가 사전을 뒤져서 몇 마디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들이 날 행복하게 한다.

하지만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에르네스트와 달리 만나는 사람들이 주는 그 때의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곳에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내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 이곳과 내가 만든 행복을 번지게 하고 지워버리려 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일까. 한국에서도 스스로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 안고 있다. 역시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 보다는 마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영어로 present,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에 매 순간에 감사하며 즐기고 싶다. 하지만 3달 넘었으니까... 즐기야 한다는 그런 강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순간 순간에 녹아 들고 싶다. 변할 수 있는 나를 고집스럽게 잡아매지 말고, 막지 않는 옷을 입은 것 마냥 어색하게 일부러 변하게도 하지 말고. 녹아 들자. 녹아 들자.



오제준 단원 ESSAY

4월은 나에게 라온아피르 캄보디아에 왔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는 달이었다. Korean week를 시작으로 Youth party, Khmer New Year(짚츠남), CDP활동, National caritas방문 등 여러 가지 활동과 연휴덕분에 시간도 빨리 지나갔다. 쿠키클래스 때 우리가 만든 수박화채를 먹고 해맑게 웃으며 "총안 나!(맛있다). 모이피음!(한그릇더)"를 외치던 Youth학생들과 아이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캄보디아 최대명절인 "짚츠남"과 카리타스 창립을 기념하여 Youth party를 하었는데 그 날, 우리는 여러 가지 캄보디아 전통게임을 볼 수 있었고 직접 참가도 하였다. 전통놀이가 점점 잊혀져 가는 한국에 비해 캄보디아는 아직도 전통놀이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지속해나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긴 연휴 동안 우리는 준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스텝들의 도움을 통해 3박4일간 캄보디아 최대의 관광도시인 시엠립에 다녀왔다. 앙코르왓, 앙코르톰, Pub street 등에서 많은 해외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앙코르왓에서는 한국인관광객들도 정말 많았다. 미리 공부하지 못했는데 한국인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한국인관광객들 틈에 섞여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으니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재밌었다.

3월은 우리가 CDP활동을 하게 될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서로 소개하는 자리가 많았다면, 4월에는 길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CDP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밭 갈기, 돼지 주사 놓기, pig raising에 관한 크레르어로 작성된 책과 강의를 하루 종일 듣고 있자니 지치기도 했지만, 항상 웃으면서 다가와주시고 끝없는 친절을 베풀어주시는 마을주민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앞으로 그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긴다.

끝으로 평일에 한국어, 영어클래스가 있어서 수업을 마치고 오후 5시가 넘어서 축구를 하는 Youth학생들과 같이 하지 못해서 한동안 나의 큰 고민거리였는데 얼마 전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Youth학생들과 함께 축구하는 클래스가 생겼다. 오늘 아침에도 축구클래스를 하고 왔는데 축구를 하면서 Youth학생들과 언어장벽을 뛰어넘고 같이 웃고 즐길 때가 너무 행복하고, 하루 종일 기쁨이 가시질 않는다. 벌써부터 다음주 토요일이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친절의 끝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한 거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을 주민들은(카리타스 스텝들까지!!) 친절의 끝을 보여주시는 듯하다.

쉬는 시간에 그냥 해먹에 한 번 앉았을 뿐인데, 또 다른 해먹을 구해다 걸어주시고. 더운 해먹을 피해 그냥 평상에 앉아있으면 꼭 그 해먹에 누워있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에게 권해주시고. 그냥 신기해서 쳐다본 것뿐인데 먹을 것을 주신다 던지, 자리를 피해주신다 던지..

먼 아이 떼!! 먼 아이 떼!!(관찮아요!!) 아무리 외쳐도 꼭 우리가 그분들의 상상대로 행동하고 있어야 마음 편히 돌아가신다.

마을 주민 분들이 친절의 끝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당혹스럽고, 부담스럽고, 하지만 고맙고.. 하는 여러 마음들을 가진다.

어쩌면 친절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끝일수도..?

-마을 아이들, 한국어 수업

한국어 반에서 수업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았다. 바로 아이들이 마을 학교에서 열리는 영어 수업을 가게 된 것. 마침 시간도 우리 수업시간과 겹쳐서 그 날 이후 한국어 수업에는 3명의 아이들만이 남게 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학교 근처에 아이들 자전차가 있는지 기웃거리기도 하고, 낄 때의!!! (가 지마!!)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영어 크레즈어로 소리치기도 했다. 또, 나는 내가 정말 귀여워했던 한 친구를 붙잡고 지금 더 경쟁력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떠나는 거냐며 한국어로 징징거리기도 했다.

이 날 이후 나는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정을 붙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다. 그 때만큼은 크레즈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착하고 딸딸한 아이들이 만큼 어딜 가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줄임을 앞둔 고3 담임선생님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국어 수업에 대한 판단지를 둘러러 다닐 것이다. 첫 수업에서 많은 아이들이 다른

깐달 특공대

수업으로 옮겨갔지만, 앞으로는 어떤 아이들을 만나던 간에 헤어짐이 후회 없도록 더 사랑해주고, 더 같이 놀고, 더 많이 눈 마주쳐야겠다.

그냥 나는 어서 빨리 한글을 너무 잘 읽어서 놀란 우리의 표정을 보며 자랑스러운 듯 더 크게 말을 하던 (소리를 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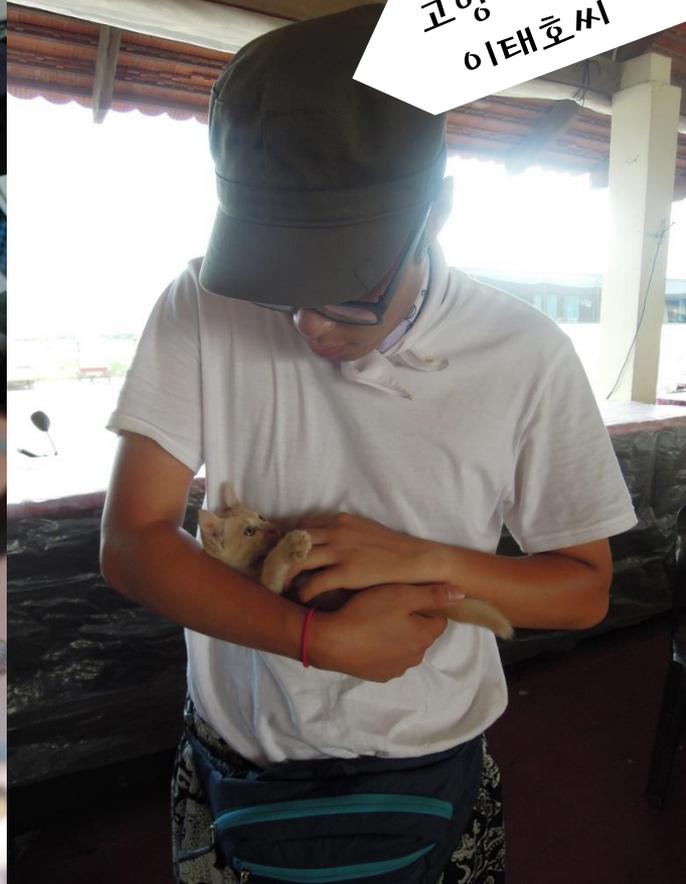
깐달 특공대

아빠들의 사진전





고양이 총각
이태호씨





아이들의 슈퍼맨
오제준씨







5월에 다시 만나요~

